

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1696
전북연구원(T.063-280-7100/F. 286-9206)
<http://www.jthink.kr>

- **문 의** : 도시공간교통연구부 오병록 부연구위원
(063-280-7165, 010-3717-7056)
- **담당실장**: 연구실장 김진석 선임연구위원
(063-280-7111)

보도시점 : 2018년 06월 22일(금)부터

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 제안

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, 전라북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 제시

-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최근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'전라북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방안' 정책브리프(통권 26호)를 발간하였다.
- 도시재생사업은 전면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의 마을을 유지하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고쳐나가는 사업이다.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를 발전시켜,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지자체와 커뮤니티가 주도하여 도시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7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하여 도내 시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기반과 지원수요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전라북도의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.
-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국가 주도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조된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추진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은 기초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.

- 전북의 경우에도 도시재생 지원조례는 시지역에만 제정되어 있고, 군지역에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이다. 또한 시군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사업비 확보도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.
- 오병록 박사는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, 조직 기반, 사업지원,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네 개의 틀에 기초하여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.
- 첫째, 제도적 기반을 갖추기 위해 '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'를 개정하여 전라북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추진 등 도시재생 지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을 추가하고, '전라북도 도시재생특별회계 조례'를 제정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성과 사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둘째,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 구축을 위해 '전라북도 도시재생지원센터'를 설치하여 도의 도시재생과 시군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원하고, 도시재생 뉴딜 공유협의체를 운영하여 도시재생 참여주체들 간의 협력과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.
- 셋째, '전라북도형 도시재생 공모사업', '전라북도 도시재생대학 운영', '도시재생 뉴딜 인큐베이팅사업', '주민제안 도시재생사업' 등 전북형 도시재생을 위한 전라북도 자체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.
- 넷째, 국비 보조가 종료된 이후에도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사업관리, 그리고 주민조직 지원이 필요하다.